



보도 일시	2023.2.12.(일) 14:00	배포 일시	2023.2.12.(일) 12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정책국	책임자	과 장 임혜영 (044-215-5480)
	재정정책협력과	담당자	사무관 박수진 (tnwld56@korea.kr)

##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, OECD 전문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 - OECD와 공공기관관리 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공감대 -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계기에 영국 예산책임청(OBR) 의장과 OECD 사무차장을 면담하였다.

### [ 출장 일정 ]

- 2.7(화) 영국 국채관리청(DMO) 차장 면담, 한국기업 민관협력 프로젝트 건설현장 시찰
- 2.8(수) FTSE Russell 면담, 글로벌 국채투자기관 라운드테이블,  
영국 예산책임청(OBR) 의장 면담
- 2.9(목) OECD 사무차장 면담
- 2.10(금)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

### 【 영국 예산책임청(OBR) 의장 면담 】

- 최 차관은 2.8(수), 영국 예산책임청 리차드 휴스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경험,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-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\*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되었다고 평가하면서,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였다.

\* 관리재정수지 GDP △3% 한도를 두되, 국가채무비율 60% 초과시 △2%로 축소

- 또한, 영국은 순채무,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‘재정위험·지속가능성보고서’를 매년 발간하여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.

\* FRS : Fiscal Risk & Sustainable Report

- 이에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, 한국도 금년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(SFMF\*)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\*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채무·재정수지 외에 다양한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 (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)

## 【 한-OECD 고위급 재정협력 채널 강화 】

- 최 차관은 2.9(목),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을 만나 한-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.
- 먼저,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-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키로 하였고,
  - 금년 4월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, 이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 정책과 주요국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한국이 「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」 개정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
- 아울러, 최 차관은 더 많은 한국인이 OECD 사무국에 진출하는 것이 한국과의 정책적인 교류 강화의 기반이 됨을 강조하였고, 다케우치 사무차장도 이에 공감하며 한국인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.

## [ 한국의 재정개혁, 재정비전 2050 소개 ]

- 최 차관은 2.10(금)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하여 OECD 재정 전문가·회원국 대표단과 「한국의 재정비전 2050」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하였다.
- 참석자들은 고물가, 고금리,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
-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.
- 이에 최 차관은 금년 상반기에 「재정비전2050」이 확정되며, 9월 개최 예정인 「한-OECD 국제재정포럼」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	책임자	과 장	임혜영	(044-215-548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문	(krrard419@korea.kr)
			사무관	박수진	(tnwld56@korea.kr)
			주무관	강원식	(onechic7@korea.kr)
	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윤범식	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형	(kminh@mosf.go.kr)
	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고재신	(044-215-5510)
		담당자	사무관	고영록	(koyr@korea.kr)